

디오게네스가 원하는

남의 시선을 벗어나 권위에 저항하는 기술

- 칼레라슨 이야기 : 현 시스템은 생태학적으로 지속불가능하고, 심리적으로 우릴 갇아먹어요. 지구를 착취하고 우리 정신을 착취해요. 기업들이 매체를 장악했고, 매체는 우리에게 소비지 상주의 메시지를 퍼붓죠. 적어도 인구의 75%는 소비라는 황홀경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세뇌당한 거죠.
- 혁명 초기에는 이상과 진실이 지배하고 사람들은 모두 진정성이 있죠. 하지만 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괴물로 변합니다.
- 스토아 학파는 조용히 사회의 해로운 가치들로부터 내면적 독립을 선언했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사회를 떠나 친구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살았다. 이 두가지 해답은 모두 정치적이지 않다. 위 두 학파는 사회를 개조할 힘이 철학자에게 없다는 걸 인정했다. 따라서 그들은 개인적 성취에 집중할 수 있었다.
- 견유학파는 인간이 문명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들의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라이프스타일은 오늘날 길거리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최초의 견유학과 중 한사람인 디오게네스는 인간의 정서적 불만은 문명이 만들어 낸 잘못된 가치관에서 온다고 판단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불행한 길을 택할까? 그건 문명에 받아들여지고 싶기 때문이다.
- 남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면 어쩌나 하는 공포야말로 우리가 문명인으로 살며 느끼는 많은 불만의 원인이다. 견유주의자로 살려면 남들이 비웃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에 둔감해져야 한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길지 지나치게 걱정하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까봐 너무 두려워한다. 그 결과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며 진짜가 아닌 삶 속에 갇힌다.
-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오래 남지도 않을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없는 돈을 들여서 산다.
- 버나드 맨더빌은 만일 모든 인간이 디오게네스처럼 금욕적으로 산다면 자본주의 경제는 붕괴할 거라고 지적했다. 자본주의는 우리 인간들이 허영심 있고 착각하고 불안정하고 불행해야 지탱된다.
- 견유주의자들에게는 국가가 폐지될 경우 대안프로그램이 없었다. 사실 그들은 국가에 의지해서 살았고, 국법의 보호를 받았다.
- 견유주의자들은 서양문화에서 최초의 '무정부주의적 원시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최초로 문명이 바로잡을 수 없을 만큼 병들었고, 인간은 자연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견유주의가 초기 기독교에 아마도 예수 본인에게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성 바오로의 삶과 글에는 견유주의의 영향이 꽤 들어난다.